

# 풍물의 흥, 석불의 평화... 안성에서 만난 공존의 시간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 르포-정기문화답사 동행기

# 지난 24일, 중앙박물관 정기문화답사 '난장의 판, 동락(同樂)의 땅'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을 찾았다. 약 30명의 참가자는 하루 동안 남사당패의 유쾌한 흥과 미륵불이 풍기는 고요한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즐기며 땅과 사람, 유적과 삶이 얹힌 이야기를 함께 경험했다.

## 여정의 시작

아침 8시, 이른 시간임에도 호기심 가득한 발걸음이 모여들었다. 중앙박물관 정기문화답사 프로그램 '난장의 판, 동락(同樂)의 땅'에 참가하기 위한 이들이었다.

참가자들은 서로 반갑게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마치 소풍을 떠나는 가족 같았다. “오늘은 민중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땅, 안성으로 갑니다.” 해설을 맡은 김용은(사학) 학술연구교수의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우며 여정이 시작됐다.

## 역사의 숨결을 따라 오르다

한 시간 남짓 달려 경기도 안성에 도착했다. 가는 봄비가 초록빛 풍경에 촉촉한 생기를 더했다. 이윽고 차창 너머로 죽주산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죽주산성은 고려시대 성곽으로 백성과 함께 몽골 군을 이겨낸 곳이다. 김 교수는 “죽주산성을 보면 왜 이 자리에 산성을 세웠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형을 보시면 압도적인 방어력을 느끼실 거예요.” 김 교수의 설명에 참가자 시선이 자연스레 산 능선으로 향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오동나무 꽃이 만개한 길목에서는 모두 탄성을 자아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우거진 숲길을 따라 오르자 시야가 트이며 웅장한 나무 사이로 안성 시내가 내려다보였다. “날씨마저 복이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산 위에 서니, ‘보로’와 ‘저항’이라는 죽주산성의 의미가 더 선명해졌다.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사용된 이 산성은 자연과 역사가 맞닿은 살아 있는 유산이었다.

## 자비와 희망의 얼굴



① 죽주산성을 오르고 있다. 죽주산성은 신라 북진 과정에서 축조한 성곽이다.(사진=중앙박물관 제공) ② 남사당패가 머물렀던 청룡사 사진. ③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매산리 석불입상. 높이 3.9미터에 이르는 고려 불상으로,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함께 선 오층석탑은 일부가 훼손됐지만, 석불은 마을을 지켜온 수호자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랜 풍화로 일부 윤곽은 흐릿했지만, 그 미소 앞에서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손을 모았다. 웅장한 자태에 버스 기사님도 잠시 운전석을 떠나 석불 앞에서 사진을 남겼다.

이어 찾은 기술리 석불입상에서는 두 구의 거대한 미륵불이 지그시 눈을 감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 키의 세 배가 넘는 이 석불들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묵탁 소리와 잔잔한 종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며, 공간 전체를 감싸는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미륵불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고려 말 불안한 시대 속 민

중이 품었던 ‘언젠가 오리라 믿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믿음, 바람 어찌면 마지막 희망이었겠죠.”

## 흥의 난장이 벌어지다

오후에는 안성남사당공연장에서 ‘남사당놀이 6마당’ 공연이 펼쳐졌다. 풍물, 어름, 버나, 덧보기 등으로 구성된 이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막이 오르자 마치 과거 안성 장터로 돌아간 듯, 공연장은 흥겨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털미(인형극)’에서는 익살맞은 목소리와 요란한 몸짓의 인형이 등장해 관객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최신 유행어와 시대 풍자를 절묘하게 버무린 대사에 관객석에서는 웃음이 새어 나왔다.

이어진 ‘살판’은 아슬아슬한 곡예와 익살스러운 연기로 무대를 채웠

다.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 판”이라는 말처럼, 위태로운 기예 속에서도 유쾌함이 가득했다. 관객 참여와 함께 생동감을 더했다.

‘버나(접시돌리기)’ 공연에선 LED 조명을 활용해 전통 형식에 현대적 화려함을 더했다. ‘어름(줄타기)’은 공연의 정점이었다. 외줄 위 광대는 새처럼 날아다니며 묘기를 선보였다. 아찔한 몸짓에 관객은 숨죽인 채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장단에 맞춰 균형을 잡으며 보인 화려한 기예에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마지막은 풍물놀이였다. 북과 팽과 리, 장구와 징이 어우러져 장단에 모두가 어깨를 들썩였다.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허문 ‘난장’이었다.

이번 답사에 참여한 한현우 씨는 “어릴 적 당진 오일장에서 봤던 풍물패가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남사당놀이였더라고요.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음악과 몸짓, 울림이 정말

웅장했어요”라며 이 순간을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로 꼽았다.

## 고요 속의 위안

마지막 장소는 남사당패가 머물렀다는 사찰, 청룡사였다. 남사당놀이의 흥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찰은 그와는 또 다른 평화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자연의 지형을 살린 대웅전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내부에는 부드러운 표정의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이 모셔져 있었다. 유려한 선을 가진 이 불상 아래 사람들은 각자 손을 모아 절했다.

앞마당에는 단정한 삼층석탑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 씨는 “예전에 자주 찾던 절이 떠오른다”며 “특별한 의미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사찰은 그냥 좋다”고 말했다.

그렇게 천천히 사찰을 둘러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여정을 마무리했다. 누군가는 석탑 앞에 멈춰 대화를 나누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풍경 속에 머물렀다.

## 함께 걷고, 함께 기억한 하루

청룡사를 끝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여운을 곱씹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정리하며 기억을 되새겼다.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의 감정과 기억을 천천히 되새기고 있었다.

“거의 6~8번 참가했어요. 이 답사에는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들 모여있어요. 매번 함께 답사를 가죠. 저희끼리는 ‘정기멤버’라고 부르죠.” 한 참가자의 말처럼, 이 답사는 단순한 유적지 탐방이 아닌, 함께 취미를 나누는 여행이었다.

진준표(사학 2020) 씨는 “중요한 문화 유적과 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즐겁고 풍요롭게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문화답사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슬기로운 취미생활(대학박물관편)’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됐다. 중앙박물관은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강연 프로그램 ‘유물에서 발견한 문화예술’을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에는 ‘조선시대 회화와 도자를 통해 본 취향의 발견’을, 다음 달 13일에는 ‘문화유산을 통해 엿본 삼국시대 놀이 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